

초록번호 24-5

제 목	국 문	중국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의 건강인식과 생활양식간의 관련성		
	영 문	The Association of Perception of Health Status with Lifestyle of Yanbian Koreans and Yanbian Chines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안현옥 ¹ · 김기순 ¹ · 류소연 ¹ · 이철갑 ¹ · 박 종 ¹ · 김양옥 ¹ · 노희경 ²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²		
	영 문	HO Ahn ¹ , KS Kim ¹ , SY Ryu ¹ , CG Lee ¹ , J Park ¹ , YO Kim ¹ , HK Ro ² <i>Dept. Prev Med,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¹</i> <i>Dep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Chosun University²</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안 현옥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의 건강인식과 생활양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단면조사연구이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구미의 연구와 연변지역 조선족이 동일지역 한족보다 유병률·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변내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민족간 생활양식의 차이가 건강인식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일반특성과 상병 및 의료이용, 흡연, 음주, 식이습관, 영양소 섭취량이 조선족과 한족에서 건강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p> <p>먼저 연구대상자를 민족별로 층화하였다. 일반적 특성, 흡연·음주습관, 식이습관, 상병 및 의료이용, 영양소 섭취량을 독립변수로 취하였고 종속변수로 건강인식을 건강군과 비건강군으로 이분하여 각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단순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p<0.1) 독립변수만 취하여 건강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건강군을 0, 비건강군을 1로 두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관련성을 검정하였다.</p>				

3. 연구결과

일반특성에서 성별은 조선족에서 건강인식과 관련이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 위험이 2.45배 높았다. 한족에서는 성별에 의한 건강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 교육정도, 직업, 배우자유무는 건강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양민족 모두 만성질환 유병자에서 만성질환 비유병자에 비해 건강인식이 나쁠 위험이 높았다 (조선족 8.48배, 한족 4.97배). 한족에서 인삼복용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건강인식이 나쁠 위험이 3.72배 높았다.

양 민족 모두에서 흡연·음주여부와 건강인식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식이습관에서 조선족은 배불리 식사를 하는 자에 비해 그렇지 않은 자의 건강인식이 나쁠 위험이 2.67배,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자에 비해 싫어하는 자가 1.78배 높았다. 한족에서는 식이습관과 건강인식간에 로지스틱회귀분석상 유의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영양소 섭취량에서 조선족은 비타민 B₂를 적게 섭취하는 군이 많이 섭취하는 군에 비해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할 위험이 2.29배, 한족에서는 비타민 C를 적게 섭취하는 군이 많이 섭취하는 군에 비해 0.18배였다. 단백질, 당질, 지질, 칼슘, 철, 비타민 A, 나이아신 등에 대하여는 양 민족집단 모두 건강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생활양식과 건강인식간의 일부 관련성을 밝히긴 했지만 생활양식이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건강인식이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그 인과성의 추론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